"은빛 날개에 실린 하늘 소망, 열방을 향해 날아오르다"

■ 미션21 창간 27주년기념 특별 취재 –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 (회장 정동훈 장로)

구원의 감격을 품고 한평생을 달려온 한국 교회의 시니어 세대. 이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바꾸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 안에서 '시니어'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강력한 선교의 주체이자 주역이다.

기독 정론지 '미션21'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지난 14년간 묵묵히 호남 지역의 영적 부흥을 이끌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시니어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의 발자취와 비전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 잠자는 달란트 깨워 다음세대와 이주민 · 북녘 땅까지 품어

2012년 설립 시니어선교학교, 11회에 걸쳐 350여 명 수료 강력한 선교 동역 네트워크

2026 글로벌컨퍼런스 8월 26일 부터 2박3일 안성사랑의 수양관에서

1. 잠재된 달란트를 깨워 열방으로: 시니어 선교의 위대한 도약

교회마다 수많은 은퇴자와 시니어들이 넘쳐나지만,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은 종종 교회 안에서 사장되곤 한다.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인생 전반전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성취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영적 추수의 시간입니다."

선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는 매우 명확하고 뜨겁다. 교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풍성한 달란트(직업적 전문성, 삶의 지혜, 시간과 물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하여 선교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회는 크게 4가지 핵심 선교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다.

- 해외 선교:지경을 넘어 복음의 불모지에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
- 이주민 선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역파송 선교사로 세운다.
- 다음세대 선교:시니어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전수하여, 무너져가는 청소년 · 청년 세대를 영적으로 재건한다.
- 복음적 평화통일 비전:가로막힌 휴전선을 넘어 북녘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2. 14년의 발자취: 350여 명의 영적 군사를 배출하기까지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오직 '선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뜻을 같이한 이들이 모여 설립의 닻을 올렸다.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는 단연 '시니어 선교학교'다. 201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선교학교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수료생만 350여 명에 이른다.

선교학교를 졸업한 시니어들은 단순히 수료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직접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지로 나갔으며, 또 다른 이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강력한 '선교 동역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4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시니어들이 배움의 열정을 태우고, 마침내 복음의 최전선에 서는 모습은 지역 교계에 신선한 충격과 깊은 도전을 선사했다.

또한 선교회는 설립 초창기인 2013년 1월, '제4회 전국시니어 선교대회'를 광주 · 전남시니어선교회 주최로 호남신학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던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해 전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수많은 목회자, 성도, 선교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대회는 호남 지역 교계에 시니어 선교의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잠자던 선교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영적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기도의 불꽃, 노하우의 전수: 매년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 사역의 영적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은 매년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글로벌 컨퍼런스'이다.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파송 선교사들과 전국 각 지회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 처소'다.

◈ 글로벌 컨퍼런스의 주요 가치

- 선교의 고급 노하우 공유
  선교지의 생생한 현장 보고와 전문인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론적 특강 제공
- 강력한 영적 재충전
  말씀과 찬양, 눈물의 기도를 통해 지친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의 영혼 회복
- 동역 네트워크 강화
  파송 선교사와 후원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

특히 시니어 세대 특유의 깊이 있는 인생 경험과 직업적 노하우가 선교적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년 컨퍼런스마다 실질적이고 고도화된 선교 방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엇보다 일평생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온 시니어들의 눈물의 기도는 참석한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다.

4. '초대의 글' 2026년 글로벌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가을의 초입,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는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시니어들이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 2026 글로벌 컨퍼런스 안내 ■

- 일시:2026년 8월 26일(수)~28일(금) [2박 3일간]
- 장소: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
- 참가 대상: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의 명쾌한 말씀 선포와 선교지 현장의 생생한 간증, 그리고 시니어 맞춤형 선교 전략 특강으로 채워진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번 컨퍼런스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5. 맺음말: '미션21'과 함께 갈 선교의 길

창간 27주년을 맞이한 '미션21'은 그동안 호남 지역과 한국 교회의 눈과 귀가 되어 복음의 소식을 전해왔다. 이제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가 뿜어내는 이 뜨거운 선교의 열기가 '미션21'의 지면과 imsTV (미션21 인터넷방송)영상을 타고 전국 교회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듯,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시니어 세대는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비밀병기다.

광주 · 전남 시니어선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여,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드리는 주인공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제11기 광주전남시니어선교학교 & 제1기 동명 5대 사명학교에 참여한 성도들과 시니어선교회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했다.